

지역 소식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발굴 '총력'

군산시, 위생관련 단체장 간담회

군산시는 2017 새만금마라톤대회와 '시간여행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손님맞이 대책 일환으로 위생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내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680여 개의 공중·식품 위생업소를 대표하는 10개 단체의 대표가 참석해 새만금시대 국제화에 맞는 접객질서 자세화방안 마련을 강구할 예정이다.

시는 '2017 새만금마라톤대회'와 '2017 전국 중·고 남녀 탁구대회', '시간여행축제' 등의 행사 개최를 앞두고 많은 선수단·가족·임원 및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선진화된 접객질서 확립에 위생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의료급여 대지급금제도 시행

군산시가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의료기관 입원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실시한다.

의료급여 대지급금제도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치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초과한 금액에 대해 승인 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기관에 지급한 후 3개월마다 3회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은 3개월마다 8회 ▲30만 원 이상은 3개월마다 12회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 열린군산 음성낭독서비스 진행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가 군산시에서 발행되는 '열린군산'을 녹음 제작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시정소식 및 다양한 정보를 들려주고 있다.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음성낭독서비스는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직원들의 목소리 재능기부로 녹음하여 월 1회 우편으로 시각장애인 가정과 관련기관에 발송하고 있다.

이밖에도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는 시각장애인들이 재활의 기초와 다양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손가락을 이용하는 점자교육과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의 상징인 '흰지팡이'를 이용한 보행 교육 지도 등 시각장애인의 복지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기준 충족하는 400여 가구 대상

군산시가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다원화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선정기준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맞춤형 복지급여는 중위소득과 연동해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가구별 개별욕구에 맞는 급여를

지원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효과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발굴과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재점검하고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신청안내에 나섰다.

이번 수급자 발굴은 부양의무자 가 구정보 등이 포함된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지원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

득 15% 이하인 가구로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기준(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 223만3690원)을 충족하는 400여 세대가 대상이다.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공무직노동조합

임금·단체협약 체결

근로조건 개선·조합원들 요구사항 반영

익산시와 익산시공무직노동조합이 2017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와 공무직노조는 20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현을 익산시

장, 공무직노조 신동범 지부장을 비롯하여 간부공무원, 노조임원진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

지고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 관계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노사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단체교섭 및 임금협상

을 진행하고, 11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협약을 만들었다.

이번 협약에는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다양한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협약서는 단체협약 91개조, 임금협약 19개조로 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은일을 도맡아 하는 공무직 조합원들의 노

고에 감사드린다"며 "노조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로 내부역량을 결집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공무직 조합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공무직노동조합은 익산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 수는 현재 17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유적지 무궁화동산 조성

근대역사 문화 유적지 상징성 나라사랑 정신 함양기대

군산시 개정면(면장 임철형)이 발산리 근대역사 문화 유적지 인근에 무궁화동산 약 661㎡를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개정면 소재지에 위치한 근대역사 문화 유적지의 상징성을 높이고 나라사랑의 정신 함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무궁화 동산 조성에는 무궁화 테마식물원(완주군 고산면 소재), 발산초등학교(교장 조명수)와 공공근로자, 자원봉사자 등 90여 명이 참석해 210여주의 무궁화를 식재했다.

무궁화동산이 조성된 지역 인근에는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인 발산리 5층 석탑(보물 제276호) 등의 유적지가 자리하고 있어, 이 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나라꽃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볼 수 있는 정서의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철형 개정면장은 "비 예산으로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다 보니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민관이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군산시의 역점사업인 관광광역화 목적에도 기여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선유스카이SUN라인' 재개장

군산 선유도의 명물 '선유스카이 SUN라인'이 재개장했다.

선유스카이 SUN라인은 선유나 조 등의 선유팔경을 볼 수 있는 45m의 전망타워를 갖췄으며, 바다에 있는 섬과 섬을 연결하여 약 700m의 바다를 횡단하는 공중하강 체험시설로써 선유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시는 체험시설의 안전 운영을 위해 탐승 시 두 개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도착지에서도 3단계에

걸쳐 충격을 완화해주는 안전프링을 설치하여 체험자의 편안한 여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또 전문 안전진행요원을 배치하여 안전한 속에서 즐기는 편안한 활강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선유스카이 SUN라인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과 함께 선유도 관광에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대학중점연구소 개소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원불교사상연구원 대학중점연구소가 개소식 및 현판식을 열고 '근대명절 수용과 정에 나타난 한국종교의 공공성 재구축'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2016년 10월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된 원불교사상연구원은 지난해 말부터 콜로키움 개최 등 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교내 송산기념관 3층에 마련된 연구소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김도중 총장

과 안평호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장을 비롯해 김상호 원광학원 상임이사 등 대내·외 인사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기원했다.

안평호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장은 축사에서 "자연과학에 비해 위축돼가는 인문학의 위기 속에서도 훌륭한 연구 성과를 올리고 있는 원불교사상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한국 근대 종교의 공공성 재구축이라는 분야에서 훌륭한 연구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말레이시아 관광객 익산 이엔코리아 방문 견학·체험

익산시가 관광객 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말레이시아 관광객이 20일 익산제일민선업단지(쥬이엔코리아)를 방문 견학과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관광객들은 전날 전주한옥마을을 관광하고 탄소응용필름으로 마스크팩, 향파, 각종식품포장 패키지 등을 생

산하는 이엔코리아를 방문해 공장견학과 스낵케어 강의 및 팩 만들기 등 체험의 시간을 갖고 소감을 즐겼다. 지난해 11월에도 중국·일본·말레이시아에서 온 아시아의료미용교류협

회의 이미용 관계자·바이어 등 200여명이(쥬이엔코리아 공장견학과 함께 화장품 체험 및 쇼핑·수출상담 등을 실시하고, 보석박물관과 주얼리리스를 관광하며 귀금속 구입을 하는 등 익산의 보석 산업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날 정현을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익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익산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의 생산 공정을 직접 견학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어린이 행복돌출군산

풍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